

박동춘의 茶 이야기

⑯ 차 음용 후 변화

“茶 여섯 모금에 신선과 통하노니…”



단원 김홍도의 신선도. 노동은 차를 마시며 신선이 되는 것이 목표였다.

당나라 문인 노동, ‘다가’에 차 음용 효능 기술

“茶, 신선에 이르는 길”… 정신음료 가치 전해

숲 속에서 불어오는 청량한 바람처럼 싱그럽고도 경쾌한 차의 풍미는 풍진 세상을 견디게 하는 위안의 산물이다. 이런 차의 가치를 노래한 문인들은 많지만 특히 9세기 당나라 인물 노동(盧仝, 795~835)은 차를 통해 고상한 삶을 구현한 사람으로 유명하다. 이미 어린 시절부터 천재적인 시의 기풍이 세상에 알려졌지만 삶이 곤궁하다는 사실을 일찍이 알아챘던 그였기에 숭산(嵩山)의 소실산(少室山)에 숨어 살며 세상살이에 곁눈질하지 않았다.

그런데도 출중했던 그의 시풍(詩風)은 세상에 널리 알려졌으며 그 기인함을 칭송하여 ‘노동체(盧仝體)라고 칭송되었다. 당송 8대가 중에 한 사람으로 추앙받는 한유(韓愈, 768~824)가 노동의 시체(詩體)를 숭상했으니 노동의 천재성은 이미 당대 대표적인 문장가에게 검증된 것이라 하겠다.

아무튼 산림에 은거하며 소박한 삶을 살았던 그는 차를 즐긴 인물로, 그의 벗 맹 간의대부가 귀하디귀한 차를 보내왔기에 감사의 정을 시로 드러낸 것이 바로 ‘맹 간의대부가 햇차를 보냈기에 마음 가는 대로 붓을 들어 감사를 표하며(走筆謝孟諫議寄新茶)’이다. 이 다시는 당대뿐 아니라 후대에 차를 즐기는 이들이 차의 오묘한 진수를 파악할 수 있는 규범이었다. 그러므로 후일 차를 논하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차의 공덕이 무엇이며 차가 사람에게 주는 이로움을 총체적으로 정의를 노동의 시 한 편에서 얻었으니 이런 그의 공덕은 육우(陸羽)의 〈다경(茶經)〉과 비견됐다.

차 문화를 집대성한 육우의 공덕은 특히 제다와 탕법을 바로 세운 것이며, 이로부터 본격적인 차 문화를 구축할 수 있었다. 이에 못지않은 공덕으로 노동의 시는 차의 가치를 천명했다는 점에서 동일하게 평가된다. 이들의 공덕은 후대에도 길이 차의 가치를 칭송할 단초를 열었다는 점에서 역사적인 의미를 지닌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차의 오묘한 세계를 드러낼 수 있는 조건은 누누이 언급했던 바와 같이 좋은 차를 얻는 일이며 차의 품수를 드러내기 위해서는 이에 걸맞은 물이 있어야 한다. 이런 차의 원리를 터득했던 노동이기에 그 또한 좋은 물을 찾았던 흔적이 〈속다경〉의 지문 중에 보인다. 바로 “왕옥산(王屋山)에 대한 내용을 〈통지(通志)〉에서 살펴보니 옥천은 농수 위에 있는데, 노동이 여기에서 차를 다렸다(王屋山按通志 玉泉在瀧水上 盧仝煎茶於此)”라고 한 대목이 그것이다. 옥천은 좋은 물로, 차의 진수를 잘 드러낼 수 있는 샘물을 말한다.

그렇다면 당대의 대표적인 다인이었던 노동은 〈다가〉에서는 차의 어떤 가치와 효능을 드러낸 것일까. 맹 간의대부는 노동과 어떤 친분을 나눈 사이였을까. 그의 〈다가〉에서 그 해답을 찾아보자.

먼저, 노동은 한낮까지 잠을 잘 수 있는 자유로운 삶을 살았던 인물이다. 바로 관직이나 사회로부터 부여받은 일이 없었던 산림처사이다. 그의 고상한 인품과 구애받지 않는 자유로움, 뛰어난 글 솜씨로 당시 그를 흠모하는 사람이 많았기에 간의대부였던 맹 씨와도 깊은 우정을 나눴을 것이다. 맹 간의대부는 황제의 언로를 맡은 높은 관리로, 황제가 즐겼던 좋은 차를 얻을 수 있는 위치에 있었던 듯하다. 그러므로 귀한 차를 노동에게 보냈을 터인데, 이는 월단차 300편을 편지와 함께 보냈다는 사실에서 확인된다.

물론 높은 관직에 있었던 간의대부가 보낸 차이기에 포장 또한 특별하여 흰 비단으로 포장한 후 세 줄로 도장이 찍어 귀중한 물품임을 상징하였다. 더구나 이 차는 황제가 마신 후 그 나머지는 왕공에게 합당한 차이거늘 무슨 일로 산속의 사람에게 이르렀는가라고 한 대목은 그 자체가 노동의 감격을 일언으로 드러낸 것이라 하겠다.

한편, 맹 간의대부가 보낸 편지를 개봉한 노동의 마음은 간의대부의 얼굴이 또렷하게 보인 듯했다고 하니 얼마나 간절하게 소통하는 벗인지를 알 수 있다. 하지만 이들은 신분과 처한 상황이 다르기에 자주 만나지는 못하는 사이지만, 항상 마음으로 연결되어 있기에 시공간을 초월한 우정을 나눈 지기(知己)이었다.

더구나 그의 〈다가〉는 9세기 무렵 서로 뜻이 통하는 벗에게 전하는 마음의 선물 중에 차만 한 것이 없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이다. 무엇 때문일까. 바로 차는 사람의 심신을 정화하여 고르지 못한 몸과 마음을 평정하게 만들어 본성으로 돌아가게 하는 정신음료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노동의 〈다가〉에는 차를 마신 후에 몸과 마음의 변화를 어떻게 느꼈던 것일까. 차를 마신 후 시차마다 변화하는 몸과 마음을 이렇게 표현하였다.

첫 모금을 마시자 입안이 윤택해지고(一碗喉吻潤), 두 번째 모금을 마시자 쓸쓸한 번민이 사라지게 하네.(二碗破孤悶) 세 번째 모금을 마시니 삭막한 마음을 더듬어 오직 오천 권의 문자가 살아나네.(三碗搜枯腸 惟有文字五千卷) 네 번째 모금은 가볍게 땀이 나면서 평소에 불편했던 일이 모두 털구멍으로 사라지네.(四碗發輕汗 平生不平事 盡向毛孔散), 다섯째 모금에서는 기골이 맑아지고(五碗肌骨淸), 여섯 모금 째에는 신령한 신선과 통하며(六碗通仙靈), 일곱 번째 모금은 마시지도 않았는데, 두 겨드랑이 사이로 스물스물 맑은 바람이 이는 것을 알겠네.(七碗喫不得也 唯覺兩腋習習淸風生)

위 내용은 차를 마신 후의 몸과 마음의 변화된 정황을 가장 상세하게 드러낸 것인데, 그의 시에서 묘사한 차의 진수에 대한 정의는 후대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 결국 차를 마시는 연유는 근심과 걱정이 사라져 순수한 몸과 마음 상태로 돌아가 신선의 경지에 이르는 길이다. 그러나 세상의 모든 차가 이런 경지를 드러내는 것은 아니다. 잘 만들어진 차의 조건을 갖춰야만 느낄 수 있는 차의 경지이다.

그러나 좋은 차와 물, 숯불과 찻그릇 등이 잘 구비됐다 할지라도 차를 다루는 사람의 인품과 통찰력이 차의 진수가 잘 드러난 차탕을 만들어 낸다. 진정 차의 오묘한 세계는 차를 만들고 다루는 사람의 덕이 함께 드러낸다는 점도 간과할 수 없는 조건이라 하겠다.

〈동아시아차문화연구소장〉

나란다축제 불교고리경시대회 완전정복 ㉜

1. 참회의 의미와 자세를 설명한 것으로서 적절하지 못한 것은?

① 원인을 살피면서 먼저 스스로 참회를 해야 한다.
② 과거의 잘못을 뉘우쳐 다시 반복하지 않도록 한다.
③ 자기 자신과 상대방을 비교하여 잘잘못을 분명히 가린다.
④ 참회는 자신의 언어와 행동과 마음의 자세를 가다듬는 출발점이다.
⑤ 미래에 있을 모든 죄를 미리 깨닫고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한다.

해설 : 참회는 오로지 자신 스스로의 잘못을 보는 것으로 상대방의 잘못이 있더라도 자신이 더 좋은 쪽으로 이끌 수는 없었는지 반성하는 것을 말한다. 타인에 대한 비난이나 책임의 전가는 참회의 요소가 될 수 없다.

2. 대한불교조계종은 2011년 3월부터 ‘자성과 쇄신을 위한 5대 결사’ 운동을 진행하고 있다. 다음 중에서 그 실천지침과 거리가 먼 것은?

① 일회용품 사용하기
② 이웃종교 바로 알기
③ 지역 결식아동 지원하기
④ 친환경 우리 농산물 애용하기
⑤ 우리 사찰(지역) 문화재 바로 알기

해설 : 자성과 쇄신을 위한 5대 결사 운동은 수행·문화·생명·나눔·평화의 다섯 분야에서 모범이 되는 활동을 불자들이 솔선수범해 가는 것이다. 평화를 위해 이웃종교를 잘 알아야 하며, 나눔을 위해 지역 결식아동을 지원할 수도 있다. 그리고 생명, 자연을 위해 친환경 우리 농산물을 애용하는 것이 권장되며 문화를 위해 우리 사찰(지역) 문화재 바로 알기를 실천할 수 있다. 일회용품 사용은 생명, 자연의 가치를 지키는 것과 반대된다.

3. 다음 중 다섯 가지 중생의 마음을 정지(停止)시키는 관법인 오정심관(五停心觀)에 포함되지 않은 것은?

① 수식관 ② 부정관 ③ 자비관 ④ 인연관 ⑤ 사문유관

해설 : 오짐심관은 숨을 헤아리는 수식관, 육신 등의 대상을 부정적으로 관찰하는 부정관, 상대방에 대한 자비심을 일으키는 자비관, 원인과 결과를 관찰하는 자비관, 제법의 실상을 관찰하는 계분별관, 혹은 부처님을 계속 생각하는 염불관으로 구성되어 있다. 사문유관은 부처님이 출가 이전 태자이시던 시절에 성(城)의 동남서북에서 늙고, 병들고, 죽는 괴로움과 출가사문을 관찰하시고 출가를 결심하게 된 계기를 말한다.

4. 다음 중, 간화선(看話禪)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화두를 들고 참선을 하는 것은 ‘아집’을 없애는 것이다.
② 화두는 생각의 길, 말길, 마음의 길이 끊어진 본래 자리를 일컫는다.
③ 간화선은 조사들의 선문답을 화두(話頭)로 정형화 시켜 수행하고 있다.
④ 화두 삼매에 이르러 화두가 타파되면 그때부터 불교에 입문할 수 있다.
⑤ 화두 참구의 중요한 세 가지 요소는 대신심(大信心), 대분심(大憤心), 대의심(大疑心)이다.

해설 : 화두는 중국에서 탄생한 선종 특유의 수행방법으로 그 수행법을 최상승이라 하여 불교수행 중의 정점으로 본다. 화두의 타파는 곧 깨달음에 직결되는 말임으로 불교의 입문 단계에서는 바라기 어렵다.

5. 부처님 당시에 보름마다 자신의 허물을 대중 앞에 고백하고 참회하는 의식이 있었는데, 이것이 오늘날 정기법회의 시초라 할 수 있다. 이를 무엇이라 하는가?

① 자자(自恣) ② 포살(布薩) ③ 불공(佛供) ④ 공양(供養) ⑤ 수련회

해설 : 불교의 수행자는 15일 마다 모여서 대중생활에 관련한 여러 의식들을 치룬다. 이를 전체적으로 포살이라고 부른다. 포살 중에는 스님들의 계율을 다같이 합송하거나 여러 가지 법문, 대중의 결정사항 등을 결정하는 것 등을 모두 각종의 포살이라고 한다. 그중에 대중생활이 원만히 이루어지기 위해서 스스로의 죄를 묻는 것을 자자포살이라고 한다. 즉 자자는 포살 안에 속하는 것으로 문제상에서 보름마다 자신의 허물을 대중 앞에서 고백하고 참회하는 의식은 자자포살을 말하지 그냥 포살을 말하는 것으로 생각하기는 어렵다. 포살은 기본적으로 계율의 합송이 중심이다. 지문상에 다소 오해할 소지가 있는 문제이다.

정답 : 1. ③ 2. ① 3. ⑤ 4. ④ 5. ②

제공 : (재)은정불교문화진흥원 / 감수 : 서정원 박사

구독 및 후원

이제 손쉽게 스마트폰으로 찍어 보내주세요

문자 · 카카오톡 접수 010-4648-8200

현대불교신문 후원금 및 구독신청서 양식

현대불교신문 후원금 신청서

▮성 명 : ▮전화번호 : ▮주 소 :
▮후 원 금 액 : 매월 원 (매월 5,000원 이상)
▮접 수 방 법 : 자동이체, 무통장입금
▮자 동 이 체 : □은 행 명 □계좌번호 □예 금 주
□예금주 주민번호(앞 6자리) :
▮무통장입금 : □계좌번호 : 농협은행 053-01-269075 □예 금 주 : (주)현대불교신문사 ※무통장입금 후 확인 전화 부탁드립니다.

구독 신청서

▮성 명 : ▮전화번호 : ▮주 소 :
▮납 부 방 법 : 자동이체(월 구독료 5천원)
□은 행 명 □계좌번호 □예 금 주
□예금주 주민번호(앞 6자리)
▮이체 희망일 : □ 5일 □15일
▮입금 계좌번호 : □국민은행 245-25-0001-461 □농협은행 053-01-269050 □예금주 : (주)현대불교신문사